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탁 수 연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종합을 통해,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989명이었는데, 청소년 482명(초 117명, 중 88명, 고 72명, 대 20명), 부모 50명(부 23명, 모 27명)이었다. 질문지는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유반응형 문항이었다. 실패 의식은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포함하였다. 미래성취 의식은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미래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내용,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다루었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학업실패를, 부모들은 가정생활실패, 학업실패 및 직업실패의 순서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적하였다.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자기자신을 많이 지적하였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력과 의지력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결여로 나타났다.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과 학업성취였으며, 성인의 경우에 행복한 가정생활이었다. 미래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은 부모를, 성인은 배우자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의 내용으로는 두 집단 모두 정서적 지원을 대표적으로 인식하였다.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집단 각각 반수 이상이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논의되었다. 1) 성취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노력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 경향성, 2) 성취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3)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 4)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본 가족주의 가치.

주요어 : 실패 의식, 미래성취 의식, 성취 의식, 토착심리, 자기조절, 사회적 지원, 화목한 가정.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인천시 남구 용현동, E-mail : yspark@inha.ac.kr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 성적이 하락했을 때, 왜 어떤 학생은 자살을 하는데,

왜 어떤 학생은 교문 밖을 나서며 즐겁게 뛰뛰이를 사먹을 수 있는가? --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있었다. 중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극히 일부 학생만이 진학할 수 있는 과학고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평소에 모범적이며 활달하던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11일). 숨진 A군은 지난 3월 치른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체 성적이 전교 100등 밖으로 밀려나서, 최근에 성적부진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한다. 숨진 A군은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평소와 같이 자정께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풀고 있던 수학문제지 뒷면에 '엄마 마음 편히 사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A군의 성적이 떨어지자 어머니도 신경쓰는 것을 A군이 의식해서 쓴 마지막 유언이었다.

메스컴에 알려진 외에 자세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숨진 A군의 심리적 이유는 본인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A군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적 하락으로 인한 학업실패 경험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자살과 관련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논의를 배제하고,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만 논의의 범위를 좁혀 보기로 한다.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기사를 읽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를, 부모들이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유된 경험들을 갖기 때문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자신의 가정에서 발생할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만의 하나 자기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이다. 삶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직장에서 높은 성취를 하고 안정된 경제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로 인해 인생의 좌절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적 부진을 비판하여 청소년이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가, 우리 사회에서 금시초문의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기사를 메스컴에서 접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제법 있다. 극단적으로 자살 행동을 취하지는 않아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비록 말버릇이기는 하지만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정도로, 강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좌절하면, 부모도 함께 힘 빠진 어깨로 짓눌려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상황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성적이라는 주제가,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의 행 불행을 좌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진 A군 경우처럼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학업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두서없이 하게 된다.

첫째로,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은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 지각하고 있는가? 보통의 한국 청소년들도 숨진 A군의 경우처럼 그렇게 학업실패를 가장 고통스

러운 실패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나 가정생활의 문제 등이 한국 성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관계에 기초한 가정생활보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한국의 성인들에게 더욱 절박한 성취목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일까? 대학교 입학 자료로서 내신성적의 관리 문제로 상대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상황에서, 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학업에서 실패경험을 하게 된다. 학업에서 실패경험을 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두 자살하거나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를 이해하면, 그러한 인지과정이 행동의 선택과 결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A군이 전교 100위권 밖으로 성적이 하락했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실패 경험 후에 더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셋째,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즉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연이어 던져보게 된다.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성취감과 실패의식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부정적인 결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시사되는 개인의 가치지향성과 의미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실패 의식과 미래성취 의식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적이 하락했을 때, 왜 어떤 학생은 자살을 하는데, 왜 어떤 학생은 교문 밖을 나서며 즐겁게 떡볶이를 사먹을 수 있는가? 아무리 성적이 전교 100등 밖으로 밀려 났다고 해도, 숨진 A군이 학업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지각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자극이라할지라도 큰 고통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서 자살행동을 할 리도 만무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미래의 성취 목표를 위해, 누구로부터의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한 사회적 지원의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고, 원하는 유형의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성취추구 과정에서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여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형성될 것이다. 숨진 A군의 경우에, 자정까지 잠들지 않고 아들의 공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높은 성취기대를 지각할 수는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성취압력이 A군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즉 학업 실패경험으로 인해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터놓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성취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길 원하는가.

한국인의 성공, 실패, 미래성취 의식 관련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

이러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의 연구에서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험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앞에서 제기한 질

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IMF시대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이전, GNP \$10,000 이상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던 시기에,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탐구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한국 사람들의 성공 의식을 분석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 결과에 의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를, 성인들은 직업에서의 성취와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성공을 위해 부모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다고 인식하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친구가, 성인은 배우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했다.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격려나 칭찬과 같은 정서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과반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를 갖는 등, 자기조절을 잘하는 것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했다.

한국 사회가 IMF 시대를 극복해 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 사람들의 성공과 관련된 토착심리에 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를 진행하였다. 다른 표집대상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와 유사한 점들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인식하였으며, 단 성인들의 경우에 성공적인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적 성취가 부각되었다. 성공을 위해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은 역시 가족이었으나, 학생들은 부모가, 성인들은 배우자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성공하는데 정서적인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선 전

체적으로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이 지적되었는데, 성인 여자의 경우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조금 더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은 한국 사회가 IMF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제불황기를 경험하기 이전에, 청소년과 성인의 실패 및 미래성취 의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 학업실패가 부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인간관계 실패가, 성인은 가정생활 문제가 중요하였다. 그러한 실패가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였고, 다른 사람 중에서는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력이나 의지력의 부족과 같은 자기조절의 결여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격과 관련된 문제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

선행연구의 제한점

이상의 세 선행연구들 중에서, 이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는 한국인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의 토착심리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토착심리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의 설계를 위해 참고가 될 제한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학생과 성인 분석대상자 수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학생이 730명인데 성인은 427명이 분석됨으로써, 학생 분석대상 수가 성인

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과 성인집단 각각에 대한 해석에서는, 각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반응율을 기초로 개념 범주들 사이의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과 성인을 합한 전체 통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학생 분석대상 수가 훨씬 많은 이유로 인해서, 전체 통계가 학생과 성인을 공정하게 대표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반응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 분석대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결과로서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의 학생과 관련된 결과는, 청소년 후기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합하여 학생집단으로서만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이질성을 지닌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검토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셋째, 성별 변인을 세대별로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였다. 즉 남자 집단은 남자 성인과 남학생이 합해진 것이고, 여자 집단은 여자 성인과 여학생이 합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분석 결과가, 정말 성취관련 토착심리에서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히기 어렵다, 즉 하위집단별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은 이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을 자극하고, 실제로 이 연구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틀의 제공단계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학생과 성인의 균형있는 표집설계를 계획하고자 한다. 학생 표집설계 과정에서는 학생 일부 집단이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상하려 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합쳐 성별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집단 내에서 남 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대별 성별 변인들의 혼합으로 인해 오염된 결과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성취관련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약간의 차이점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시도(박영신, 2003; 박영신, 김의철, 2002; Kim & Park, 2003)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세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 즉 IMF시대 이전의 성공의식(김의철, 박영신, 1997) IMF시대 이전의 실패와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 IMF시대 이후의 성공의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만을 토대로 한국 사람들의 성취의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한국 사회가 1997년 11월 이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난 뒤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에 대한 분석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완하면,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실패와 미래성취 의

식을 분석하여, 토착심리를 규명해 내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한국인의 성취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일련의 연구들에서 비어있는 한 공간을 설명하여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Kim과 Park(2003)은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지향 성취동기(Yu & Yang, 1994)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의존성, 노력에 대한 강조, 가정과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일치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Seth(2002)는 한국의 교육열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소개를 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 학생들이 국제 비교에서 높은 수학 과학 성취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성취의식이라는 토착심리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라는 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분석은 성취의식 외에도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1997), 일탈행동(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신뢰(박영신, 김의철, 2005), 안전의식(박영신, 2003), 삶의 질(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 사회 인식(김의철, 박영신, 2004a),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등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접근되어 왔다. Kim과 그의 동료들은 토착심리학의 이론과 더불어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Kim, Park, & Park, 1999), 과학적 심리학으로서 토착심리학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의의(Kim, Park, &

Park, 2000)를 논의한 바 있다. 이제 토착심리학은 심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그 뿌리가 확고해 졌으며(Kim & Park, 2004),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착심리 연구 결과들은 토착심리학의 학문적 기초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자료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총 3,250명이었다. 2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350명과 그들의 부모 350명과 모 350명, 2개 중학교에서 학생 300명과 그들의 부모 300명과 모 300명, 3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350명과 그들의 부모 350명과 모 350명이 표집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은 250명이 표집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과 부모, 모가 모두 회수된 질문지는 1,221명이었다. 이 자료와 대학생 자료를 검토하여, 응답을 빠트린 문항이 많거나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분석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분석대상은 989명이었다. 학생 482명과 그들의 부모 507명(부 236명, 모 271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은 초등학생 117명, 중학생 88명, 고등학생 72명, 대학생 205명으로서, 남녀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학생집단의 학업성적별 분포는 중간집단이 가장 많았다(상 16.7%, 중상 41.5%, 중 27.8%, 중하 11.4%, 하 2.6%).

부모 집단의 평균 연령은 부모 42.5세(최저 32

세, 최고 60세), 모 39세(최저 31세, 최고 50세)였다. 학력은 부(초졸 2.5%, 중졸 9.3%, 고졸 49.2%, 대졸 34.7%, 대학원졸 4.2%)와 모(초졸 1.8%, 중졸 16.6%, 고졸 63.8%, 대졸 17.0%, 대학원졸 0.7%) 모두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학력이 조금 더 높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부(상 1.3%, 중상 17.4%, 중 54.2%, 중하 19.9%, 하 7.2%)와 모(상 0.7%, 중상 16.7%, 중 58.7%, 중하 18.2%, 하 5.6%) 모두,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제작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7개 문항의 자유반응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①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 ② 실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③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④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⑤ 미래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미래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내용, ⑦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실시방법 및 분석절차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표집했다. 그리고 표집대상 학생들에게 부모용 질문지를 실시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질적 자료의 분석 절차는,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와 동일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의 응답을 각 질문 문항별로 모두 기록하고, 모든 응답들을 같은 내용끼리 분류 정리하여,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 숫자와 명칭을 부여하

였다. 각 항목에 부여한 숫자들을 기초로 하여 자료입력을 위한 틀(coding scheme)을 제작하였다. 3명의 채점자가 자료입력을 위한 틀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틀을 확정하였다.

자료입력을 위한 틀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을 숫자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력한 전체 자료를 기초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에 의해 각 문항의 항목별 빈도를 산출하여, 빈도가 10미만인 항목들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항목들에 포함하거나, 개념적으로 유사한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포함하였다.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범주들을 대상으로 다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각 범주에 대한 빈도를 결정하고,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빈도가 약 5%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범주를 확정하였다. 전체 자료를 갖고 분석한 각 문항 내의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하는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청소년은 초·중·고 대학생 집단별로, 성인은 부모별로 다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험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표 1.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실패경험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학업 실패	293 (32.9)	60 (54.1)	42 (51.9)	31 (43.7)	80 (40.0)	213 (46.0)	24 (11.0)	56 (26.8)	80 (18.6)
① 대학입시 실패	73 (8.2)	-	-	-	43 (21.5)	43 (9.3)	8 (3.7)	22 (10.5)	30 (7.0)
② 성적하락	57 (6.4)	15 (13.5)	16 (19.8)	17 (23.9)	7 (3.5)	55 (11.9)	-	2 (1.0)	2 (.5)
③ 공부	41 (4.6)	10 (9.0)	7 (8.6)	6 (8.5)	3 (1.5)	26 (5.6)	8 (3.7)	7 (3.3)	15 (3.5)
④ 시험	32 (3.6)	17 (15.3)	9 (11.1)	3 (4.2)	1 (.5)	30 (6.5)	2 (.9)	-	2 (.5)
⑤ 휴학/학업중단	26 (3.0)	-	-	-	3 (1.5)	3 (.6)	5 (2.3)	18 (8.6)	23 (5.4)
⑥ 과외 공부중단	20 (2.2)	9 (8.1)	7 (8.6)	2 (2.8)	2 (1.0)	20 (4.3)	-	-	-
⑦ 학교생활	17 (1.9)	1 (.9)	-	1 (1.4)	9 (4.5)	11 (2.4)	-	6 (2.9)	6 (1.4)
⑧ 입상하지 못함	15 (1.7)	8 (7.2)	3 (3.7)	2 (2.8)	1 (.5)	14 (3.0)	-	1 (.5)	1 (.2)
⑨ 진로/학과선택	12 (1.4)	-	-	-	11 (5.5)	11 (2.4)	1 (.5)	-	1 (.2)
2. 자기조절 실패	122 (13.7)	20 (18.0)	19 (23.4)	13 (18.3)	23 (11.5)	75 (16.2)	23 (10.6)	24 (11.5)	47 (11.0)
① 자기 조절 부족	55 (6.2)	11 (9.9)	10 (12.3)	7 (9.9)	6 (3.0)	34 (7.3)	10 (4.6)	11 (5.5)	21 (4.8)
② 성격문제	30 (3.4)	7 (6.3)	6 (7.4)	2 (2.8)	7 (3.5)	22 (4.8)	4 (1.8)	4 (1.9)	8 (1.9)
③ 생활 관리	22 (2.4)	2 (1.8)	3 (3.7)	4 (5.6)	4 (2.0)	13 (2.8)	5 (2.3)	4 (1.9)	9 (2.1)
④ 여가생활	15 (1.7)	-	-	-	6 (3.0)	6 (1.3)	4 (1.8)	5 (2.4)	9 (2.1)
3. 인간관계 실패	119 (13.4)	4 (3.6)	3 (3.7)	13 (18.3)	62 (31.0)	82 (17.7)	21 (9.6)	16 (7.7)	37 (8.7)
① 친구관계 실패	36 (4.0)	3 (2.7)	1 (1.2)	8 (11.3)	16 (8.0)	28 (6.0)	4 (1.8)	4 (1.9)	8 (1.9)
② 이성친구와의 관계	36 (4.0)	-	-	2 (2.8)	32 (16.0)	34 (7.3)	1 (.5)	1 (.5)	2 (.5)
③ 인간관계	33 (3.7)	-	2 (2.5)	2 (2.8)	13 (6.5)	17 (3.7)	10 (4.6)	6 (2.9)	16 (3.7)
④ 배신	14 (1.6)	1 (.9)	-	1 (1.4)	1 (.5)	3 (.6)	6 (2.8)	5 (2.4)	11 (2.6)
4. 가정생활 문제	116 (13.0)	6 (5.4)	6 (7.4)	3 (7.0)	8 (4.0)	25 (5.4)	29 (13.3)	62 (29.7)	91 (21.3)
① 부모님과의 갈등	29 (3.2)	4 (3.6)	4 (4.9)	4 (5.6)	2 (1.0)	14 (3.0)	6 (2.8)	9 (4.3)	15 (3.5)
② 가족관계	28 (3.1)	2 (1.8)	2 (2.5)	1 (1.4)	6 (3.0)	11 (2.4)	9 (4.1)	8 (3.8)	17 (4.0)
③ 가정생활	26 (3.0)	-	-	-	-	-	7 (3.2)	19 (9.1)	26 (6.1)
④ 자녀교육	12 (1.4)	-	-	-	-	-	4 (1.8)	8 (3.8)	12 (2.8)
⑤ 부모 돌아가심	11 (1.2)	-	-	-	-	-	1 (.5)	10 (4.8)	11 (2.3)
⑥ 배우자와의 갈등	10 (1.1)	-	-	-	-	-	2 (.9)	8 (3.8)	10 (2.7)
5. 없음	88 (9.9)	20 (18.0)	11 (13.6)	6 (8.5)	17 (8.5)	54 (11.7)	21 (9.6)	13 (6.2)	34 (8.0)
6. 직업 실패	81 (9.1)	-	-	-	6 (3.0)	6 (1.3)	56 (25.7)	19 (9.0)	75 (17.6)
① 사업실패	49 (5.5)	-	-	-	-	-	37 (17.0)	12 (5.7)	49 (11.5)
② 직장퇴직/직장생활	18 (1.9)	-	-	-	2 (1.0)	2 (.4)	12 (5.5)	4 (1.9)	16 (3.7)
③ 직업선택 실패	14 (1.6)	-	-	-	4 (2.0)	4 (.9)	7 (3.2)	3 (1.4)	10 (2.3)
7. 경제적인 문제	49 (5.5)	-	-	1 (1.4)	3 (1.5)	4 (.9)	28 (12.8)	17 (8.1)	45 (10.6)
① 경제적 어려움	38 (4.3)	-	-	1 (1.4)	3 (1.5)	4 (.9)	21 (9.6)	13 (6.2)	34 (8.0)
② 투자 실패	11 (1.2)	-	-	-	-	-	7 (3.2)	4 (1.9)	11 (2.6)
8. 기타	22 (2.5)	1 (.9)	-	2 (2.8)	1 (.5)	4 (.9)	18 (7.4)	2 (1.0)	18 (4.2)
① 주변환경/IMF	12 (1.4)	-	-	-	-	-	10 (4.6)	2 (1.0)	12 (2.8)
② 기타	10 (1.1)	1 (.9)	-	2 (2.8)	1 (.5)	4 (.9)	6 (2.8)	-	6 (1.4)
계	890 (100)	111 (100)	81 (100)	71 (100)	200 (100)	463 (100)	218 (100)	209 (100)	427 (100)

비율이 '학업 실패'(46%)를 지적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실패경험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실패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실패'를 치명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 실패 다음으로는 '인간관계 실패'와 '자기조절 실패'가 20%에 가까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 실패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극히 일부가 반응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현저히 증가하고, 대학생 집단 경우는 학업 실패에 못지않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의 인간관계 실패는 주로 동성 친구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대학생 시기는 이성 친구 관계에서의 실패가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가정생활 문제'도 의미있는 범주로 포함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반응율이 낮았다. 학생 집단에서 가정생활 문제는 가족관계라든가 부모님과의 갈등과 같은 내용들을 함축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 갈등보다는 친구와 갈등이 훨씬 고통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가정생활 문제'(21.3%)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이 범주에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과 같이 가족간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실패 경험 외에도, '자녀교육'이 의미있게 포함되어 있었다. 가정생활 문제와 비슷한 비율로 두 번째로 '학업실패' 세 번째로 '직업 실패'가 많이 지적되었다. 즉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학창시절 학업에서의 실패를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와 모 집단을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부 집단에서는 '직업 실패'(25.7%)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 학업 실패의 순서로 반응 범주가 나

타났다. 반면에 모 집단에서는 '가정생활 문제'(29.7%)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학업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인 남자는 직업에서의 실패 경험 가장 고통스럽게 지각되고 있다면, 성인 여자는 가정생활 문제와 과거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차이가 있었다.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당신이 실패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중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66.5%)과 부모(57.2%) 집단에서 과반수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범주는 '나 자신'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동일했으며, 부와 모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로 지적된 범주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구'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다. 부 집단에서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친구'(25.7%)가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으나, 모 집단에서는 '기타 가족' 범주가 두 번째로 부각되었는데, 이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인 남자들은 자기 자신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성인 여자들은 자기 자신 다음으로 배우자 때문에 본인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인 남자들은 배우자 때문에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

표 2.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영향 준 사람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나 자신		483 (62.0)	54 (58.0)	49 (72.1)	46 (67.6)	119 (68.3)	268 (66.5)	90 (51.4)	125 (62.1)	215 (57.2)
① 나 자신		280 (35.9)	39 (41.9)	28 (41.2)	21 (30.9)	82 (47.1)	170 (42.2)	45 (25.7)	65 (32.3)	110 (29.3)
② 영향 준 사람 없음		174 (22.3)	15 (16.1)	21 (30.9)	25 (36.8)	35 (20.1)	96 (23.8)	33 (18.9)	45 (22.4)	78 (20.7)
③ 나의 성격		29 (3.8)	-	-	-	2 (1.1)	2 (0.5)	12 (6.9)	15 (7.5)	27 (7.2)
2. 친구		132 (16.9)	19 (20.4)	13 (19.0)	12 (17.6)	28 (16.1)	72 (17.9)	45 (25.7)	15 (7.5)	60 (16.0)
① 친구		95 (12.2)	18 (19.3)	13 (19.0)	10 (14.1)	19 (10.9)	60 (14.9)	24 (13.7)	11 (5.5)	35 (9.3)
② 동료		24 (3.1)	-	-	-	-	-	21 (12.0)	3 (1.5)	24 (6.4)
③ 이성친구		13 (1.6)	1 (1.1)	-	2 (2.8)	9 (5.2)	12 (3.0)	-	1 (0.5)	1 (0.3)
3. 부모님		67 (8.6)	10 (10.9)	1 (1.5)	5 (7.4)	17 (9.8)	33 (8.2)	14 (8.0)	20 (10.0)	34 (9.1)
① 부모님		35 (4.5)	6 (6.5)	-	1 (1.5)	8 (4.6)	15 (3.7)	9 (5.2)	11 (5.5)	20 (5.3)
② 아버지		17 (2.2)	2 (2.2)	-	2 (2.9)	6 (3.4)	10 (2.5)	3 (1.7)	4 (2.0)	7 (1.9)
③ 어머니		15 (1.9)	2 (2.2)	1 (1.5)	2 (2.9)	3 (1.7)	8 (2.0)	2 (1.1)	5 (2.5)	7 (1.9)
4. 기타 가족		59 (7.6)	7 (7.5)	1 (1.5)	-	4 (2.3)	12 (3.0)	12 (6.9)	35 (17.4)	47 (12.5)
① 배우자		25 (3.2)	-	-	-	-	-	2 (1.1)	23 (11.4)	25 (6.6)
② 가족		19 (2.4)	2 (2.2)	1 (1.5)	-	4 (2.3)	7 (1.7)	2 (1.1)	10 (5.0)	12 (3.2)
③ 형제관계		15 (1.9)	5 (5.4)	-	-	-	5 (1.2)	8 (4.6)	2 (1.0)	10 (2.7)
5. 기타		38 (4.9)	3 (3.3)	4 (5.9)	5 (7.4)	6 (3.5)	18 (4.5)	14 (8.0)	6 (3.0)	20 (5.3)
① 주위사람		29 (3.6)	1 (1.1)	4 (5.9)	4 (5.9)	5 (2.9)	14 (3.5)	11 (6.3)	4 (2.0)	15 (4.0)
② 선생님		6 (0.8)	2 (2.2)	-	1 (1.5)	1 (0.6)	4 (1.0)	1 (0.6)	1 (0.5)	2 (0.5)
③ 친척		3 (0.4)	-	-	-	-	-	2 (1.1)	1 (0.5)	3 (0.8)
계		779 (100)	93 (100)	68 (100)	68 (100)	174 (100)	403 (100)	175 (100)	201 (100)	376 (100)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패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부모’를 응답한 것은 청소년의 경우는 세 번째로, 성인의 경우는 네 번째로 의미있는 범주를 구성하였다. 전체 반응율을 비교해 볼 때 ‘나 자신’이나 ‘친구’보다 ‘부모’를 실패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당신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

는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를 분석한 것이 표 3이다. 청소년(52.4%)과 부모(26.3%) 모두 ‘자기 조절 결여’를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으로 지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와 모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자기조절 결여 범주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노력 부족, 마음가짐, 의지력 부족, 안일한 태도, 게으름’ 등이었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두 번째로 ‘성격 문제’(24.3%)가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자만심이라든가 자신감 부족과 같은 극단적으로 다른 성

표 3.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실패 원인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자기조절 결여	325 (39.9)	59 (68.6)	48 (64.0)	32 (46.4)	88 (42.7)	222 (52.4)	55 (28.5)	48 (24.3)	103 (26.3)
① 노력 부족	100 (12.3)	36 (41.9)	20 (26.7)	9 (13.0)	17 (8.8)	82 (19.3)	9 (4.7)	9 (4.5)	18 (4.6)
② 마음가짐	62 (7.6)	4 (4.7)	9 (12.0)	6 (8.7)	24 (12.4)	43 (10.1)	9 (4.7)	10 (5.1)	19 (4.9)
③ 의지력 부족	58 (7.1)	3 (3.5)	4 (5.3)	4 (5.8)	18 (9.3)	29 (6.8)	17 (8.8)	12 (6.1)	29 (7.4)
④ 안일한 태도/실수	54 (6.6)	8 (9.3)	9 (12.0)	6 (8.7)	9 (4.6)	32 (7.5)	17 (8.8)	5 (2.5)	22 (5.6)
⑤ 게으름	36 (4.4)	3 (5.8)	4 (5.3)	6 (8.7)	12 (6.2)	27 (6.4)	3 (1.6)	6 (3.0)	9 (2.3)
⑥ 인내력 부족	15 (1.8)	3 (3.5)	1 (2.7)	1 (1.4)	3 (1.5)	9 (2.1)	-	6 (3.0)	6 (1.5)
2. 성격문제	165 (20.2)	19 (22.1)	14 (18.7)	16 (23.2)	54 (27.8)	103 (24.3)	27 (14.0)	35 (17.7)	62 (15.9)
① 나의 성격	57 (7.0)	7 (8.1)	4 (5.3)	3 (7.2)	18 (9.3)	34 (8.0)	11 (5.7)	12 (6.1)	23 (5.9)
② 자만심	32 (3.9)	8 (9.3)	1 (1.3)	2 (2.9)	12 (6.2)	23 (5.4)	5 (2.6)	4 (2.0)	9 (2.3)
③ 자신감 부족	23 (2.8)	2 (2.3)	4 (5.3)	3 (4.3)	7 (3.6)	16 (3.8)	4 (2.1)	3 (1.5)	7 (1.8)
④ 적극성이 없음	17 (2.1)	-	1 (2.7)	1 (1.4)	4 (3.1)	9 (2.1)	4 (2.1)	4 (2.0)	8 (2.0)
⑤ 부적응	14 (1.7)	-	-	3 (4.3)	3 (2.6)	1 (1.9)	3 (1.6)	3 (1.5)	6 (1.5)
⑥ 우유부단	11 (1.3)	-	3 (4.0)	1 (1.4)	3 (1.5)	7 (1.7)	-	4 (2.0)	4 (1.0)
⑦ 불성실성	11 (1.3)	2 (2.3)	-	1 (1.4)	3 (1.5)	4 (1.4)	-	5 (2.5)	5 (1.3)
3. 환경적 어려움	83 (10.2)	-	1 (1.3)	8 (11.5)	8 (4.1)	17 (4.0)	39 (20.2)	27 (13.6)	66 (16.9)
① 주변환경	32 (3.9)	-	-	3 (4.3)	4 (2.1)	7 (1.7)	18 (9.3)	7 (3.5)	25 (6.4)
② 경제적 어려움	31 (3.8)	-	1 (1.3)	1 (1.4)	1 (1.5)	3 (1.7)	15 (7.8)	13 (6.6)	28 (7.2)
③ 정보부족	20 (2.5)	-	-	4 (5.8)	3 (1.5)	7 (1.7)	6 (3.1)	7 (3.5)	13 (3.3)
4. 인간관계	68 (8.4)	1 (1.2)	1 (2.7)	6 (8.7)	17 (8.9)	26 (6.1)	26 (13.5)	16 (8.1)	42 (10.7)
① 사람을 쉽게 믿음	29 (3.6)	-	1 (1.3)	2 (2.9)	4 (2.1)	7 (1.7)	17 (8.8)	5 (2.5)	22 (5.6)
② 상대방에 대한 욕심	15 (1.8)	1 (1.2)	-	1 (1.4)	4 (2.1)	6 (1.4)	2 (1.0)	7 (3.5)	9 (2.3)
③ 이해심 부족	12 (1.5)	-	-	1 (1.4)	3 (2.6)	4 (1.4)	4 (2.1)	2 (1.0)	6 (1.5)
④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12 (1.5)	-	1 (1.3)	2 (2.9)	4 (2.1)	7 (1.7)	3 (1.6)	2 (1.0)	5 (1.3)
5. 능력 부족	64 (7.8)	4 (4.6)	7 (9.3)	3 (4.3)	20 (9.2)	34 (8.0)	18 (9.3)	12 (6.1)	30 (7.7)
① 판단력 부족	29 (3.6)	2 (2.3)	4 (5.3)	-	9 (4.6)	15 (3.5)	5 (2.6)	9 (4.5)	14 (3.6)
② 능력 부족	27 (3.3)	2 (2.3)	3 (4.0)	3 (4.3)	1 (4.1)	16 (3.8)	9 (4.7)	2 (1.0)	11 (2.8)
③ 경험 부족	8 (1.0)	-	-	-	3 (1.5)	5 (1.7)	4 (2.1)	1 (1.5)	5 (1.3)
6. 가정환경	61 (7.5)	3 (3.5)	3 (3.9)	4 (5.7)	6 (3.1)	16 (3.8)	15 (7.8)	30 (15.1)	45 (11.5)
① 가정환경	31 (3.8)	-	1 (1.3)	1 (1.4)	4 (2.1)	6 (1.4)	9 (4.7)	16 (8.1)	25 (6.4)
② 가족간의 불화	20 (2.5)	1 (1.2)	1 (1.3)	3 (4.3)	1 (1.0)	7 (1.7)	5 (2.6)	8 (4.0)	13 (3.3)
③ 가족의 무관심	10 (1.2)	2 (2.3)	1 (1.3)	-	-	3 (1.7)	1 (1.5)	6 (3.0)	7 (1.8)
7. 기타	49 (6.0)	-	-	-	4 (3.1)	4 (1.4)	13 (6.7)	30 (15.1)	43 (11.0)
① 없음	43 (5.3)	-	-	-	-	-	13 (6.7)	30 (15.1)	43 (11.0)
② 기타	6 (1.7)	-	-	-	4 (3.1)	4 (1.4)	-	-	-
계	815 (100)	88 (100)	75 (100)	69 (100)	194 (100)	424 (100)	195 (100)	198 (100)	391 (100)

격 유형들이 포함되었다. 부모 중에서도 모 집단은 청소년들과 일치하여, 자기조절 결여 다음으로 '성격문제'(17.7%)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부 집단은 자기조절 결여 다음으로 환경적 어려움(20.2%)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환경적 어려움에는 주변 환경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및 정보 부족 등이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들이 더욱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한국인의 미래성취와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 먼저, '당신이 앞으로 가장 성공하거나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집단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과 학업 성취 범주를 합하면 75.6%나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반응을 하였다. 청소년집단 내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 '취업'(47.%)이라고 반응한 경우가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였고, 초(42.7%) 중(51.7%) 고등학생(50.0%)은 '학업성취'에 관련된 응답들이 각각 거의 과반수가 되었다.

성인 전체를 보면, 청소년과는 달리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부각되고, 그 다음으로 '성공적인 직장생활' '경제적 안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인 하위집단 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부 집단은 '성공적인 직장생활'(46.2%)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생활'(34.6%)과

'경제적 안정'(10.7%)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 집단은 '행복한 가정생활'(50.4%)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과반수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성공적인 직장생활'(11.9%) '자아실현 사회봉사'(10.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인들에게는 가정의 행복이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열망은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들도 물론 행복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한편 행복한 가정생활의 의미로는 자녀의 성공적인 양육이라든가, 자녀의 성공 또는 남편의 성공 등이 포함되었다.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도움의 내용

표 5는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의 반응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전체를 보면, '부모님'이 30% 이상의 반응율을, '나 자신'이 20% 이상을, 친구들과 '선생님'이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인 전체를 보면, '부모 외 가족'이 65.1%로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나 자신'(12.9%)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 외 가족' 범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배우자'였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는 미래 성취를 위해 배우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집단 내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집단에서

표 4.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미래성취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행복한 가정생활		238 (24.2)	1 (1.7)	3 (3.4)	2 (2.8)	14 (6.9)	21 (4.4)	81 (34.6)	136 (50.4)	217 (43.1)
① 행복한 가정생활		82 (8.3)	1 (1.7)	3 (3.4)	2 (2.8)	14 (6.9)	21 (4.4)	34 (14.5)	27 (10.0)	61 (12.1)
② 자녀 양육		66 (6.7)	-	-	-	-	-	12 (5.1)	34 (20.0)	66 (13.1)
③ 자녀/남편의 성공		42 (4.3)	-	-	-	-	-	16 (6.8)	26 (9.6)	42 (8.3)
④ 가족의 건강		22 (2.2)	-	-	-	-	-	6 (2.6)	16 (5.9)	22 (4.4)
⑤ 결혼/재혼		14 (1.4)	-	-	-	-	-	6 (2.6)	8 (3.0)	14 (2.8)
⑥ 자녀의 교육적 성취		12 (1.2)	-	-	-	-	-	7 (3.0)	5 (1.9)	12 (2.4)
2. 취업		230 (23.3)	51 (43.6)	30 (34.5)	22 (30.5)	96 (47.0)	199 (41.4)	9 (3.8)	22 (8.0)	31 (6.2)
① 교육직		34 (5.5)	7 (6.0)	7 (8.0)	3 (4.2)	36 (17.6)	53 (11.0)	-	1 (.4)	1 (.2)
② 원하는 직업 구하기		51 (5.2)	4 (3.4)	5 (5.7)	7 (9.7)	34 (16.7)	50 (10.4)	-	1 (.4)	1 (.2)
③ 개인사업/창업		25 (2.5)	3 (2.6)	1 (1.1)	1 (1.4)	1 (.5)	6 (1.3)	9 (3.8)	10 (3.7)	19 (3.8)
④ 전문직		23 (2.3)	6 (5.1)	6 (6.9)	4 (5.6)	5 (2.5)	21 (4.4)	-	2 (.7)	1 (.4)
⑤ 의사/약사/학자		18 (1.8)	8 (6.8)	5 (5.7)	3 (4.2)	2 (1.0)	18 (3.8)	-	-	-
⑥ 기타 희망직업		17 (1.7)	12 (10.3)	2 (2.3)	1 (1.4)	1 (.5)	16 (3.3)	-	1 (.4)	1 (.2)
⑦ 전공/취업에 맞는 직업		15 (1.5)	2 (1.7)	1 (1.1)	2 (2.8)	7 (3.4)	12 (2.5)	-	3 (1.1)	3 (.6)
⑧ 연예인/운동선수		15 (1.5)	1 (.9)	1 (1.1)	1 (1.4)	10 (4.9)	13 (2.7)	-	2 (.7)	1 (.4)
⑨ 자격증 취득		12 (1.2)	8 (6.8)	2 (2.3)	-	-	10 (2.1)	-	2 (.7)	1 (.4)
3. 학업성취		172 (17.5)	50 (42.7)	45 (51.7)	36 (50.0)	33 (16.2)	164 (34.2)	-	8 (3.0)	1 (1.6)
① 공부를 통한 성공		62 (6.3)	20 (17.1)	19 (21.8)	5 (6.9)	18 (8.8)	62 (12.9)	-	-	-
② 대학/대학원진학		36 (5.7)	3 (2.6)	12 (13.8)	30 (41.7)	9 (4.4)	54 (11.3)	-	2 (.7)	1 (.4)
③ 지적인 성취 욕구		22 (2.2)	8 (6.8)	5 (5.7)	-	5 (2.5)	18 (3.8)	-	4 (1.5)	4 (.8)
④ 과외 공부특기 적성개발		22 (2.2)	12 (10.3)	6 (6.9)	1 (1.4)	1 (.5)	20 (4.2)	-	2 (.7)	1 (.4)
⑤ 상 받는 것		10 (1.0)	7 (6.0)	3 (3.4)	-	-	10 (2.1)	-	-	-
4. 성공적인 직장생활		165 (16.8)	2 (1.7)	1 (1.1)	4 (5.6)	18 (8.8)	25 (5.2)	108 (46.2)	32 (11.9)	140 (27.8)
① 직업에서의 성공		66 (6.7)	2 (1.7)	1 (1.1)	2 (2.8)	10 (4.9)	15 (3.1)	46 (19.7)	5 (1.9)	51 (10.1)
② 사업 번창/승진		40 (4.1)	-	-	-	-	-	26 (11.1)	14 (5.2)	40 (7.9)
③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성공		30 (3.1)	-	-	2 (2.8)	8 (3.9)	10 (2.1)	11 (4.7)	9 (3.3)	20 (4.0)
④ 직장에서 인정받기		15 (1.5)	-	-	-	-	-	13 (5.6)	2 (.7)	15 (3.0)
⑤ 현재 직장생활 유지		14 (1.4)	-	-	-	-	-	12 (5.1)	2 (.7)	14 (2.8)
5. 경제적 안정		66 (6.4)	1 (.9)	2 (2.3)	3 (4.2)	8 (3.9)	14 (2.9)	25 (10.7)	24 (8.9)	49 (9.7)
① 경제적 안정		32 (3.3)	1 (.9)	2 (2.3)	3 (4.2)	6 (2.9)	12 (2.5)	12 (5.1)	8 (3.0)	20 (4.0)
② 내집 마련/재산 증식		16 (1.6)	-	-	-	-	-	9 (3.8)	7 (2.6)	16 (3.2)
③ 여가생활편안한 노후생활		15 (1.5)	-	-	-	2 (1.0)	2 (.4)	4 (1.7)	9 (3.3)	13 (2.6)
6. 자아실현/사회봉사		59 (6.0)	-	1 (1.1)	2 (2.8)	21 (10.3)	24 (5.0)	7 (3.0)	28 (10.4)	35 (6.9)
① 자아실현		26 (2.6)	-	1 (1.1)	2 (2.8)	12 (5.9)	15 (3.1)	1 (.4)	10 (3.7)	11 (2.2)
②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확립		19 (1.9)	-	-	-	5 (2.5)	5 (1.0)	2 (.9)	12 (4.4)	14 (2.8)
③ 진정한 신앙인		14 (1.4)	-	-	-	4 (2.0)	4 (.8)	4 (1.7)	6 (2.2)	10 (2.0)
7. 기타		57 (5.8)	11 (9.4)	5 (5.7)	3 (4.2)	14 (6.9)	33 (6.9)	4 (1.8)	20 (7.4)	24 (4.8)
① 현재생활 지속		28 (2.9)	10 (8.5)	4 (4.6)	-	6 (2.9)	20 (4.2)	2 (.9)	6 (2.2)	1 (1.6)
② 대인관계		21 (2.1)	-	1 (1.1)	3 (4.2)	8 (3.9)	12 (2.5)	2 (.9)	7 (2.6)	9 (1.8)
③ 없음		8 (.8)	1 (.9)	-	-	-	1 (.2)	-	7 (2.6)	1 (1.4)
계		984 (100)	117 (100)	87 (100)	72 (100)	204 (100)	480 (100)	234 (100)	270 (100)	504 (100)

표 5.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집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부모 외 가족	340 (36.1)	6 (5.3)	6 (7.0)	3 (6.9)	15 (7.7)	32 (6.9)	126 (60.3)	182 (69.0)	308 (65.1)
① 배우자	170 (18.0)	-	-	-	4 (2.1)	4 (.9)	63 (30.1)	103 (39.0)	166 (35.1)
② 가족	132 (14.0)	1 (1.8)	3 (5.8)	4 (5.6)	10 (5.1)	21 (4.5)	54 (25.8)	57 (21.6)	111 (23.5)
③ 자녀	28 (3.0)	-	-	-	-	-	6 (2.9)	22 (8.3)	28 (5.9)
④ 형제 자매	10 (1.1)	4 (3.5)	1 (1.2)	1 (1.4)	1 (.5)	7 (1.5)	3 (1.4)	-	3 (.6)
2. 나 자신	168 (17.9)	6 (5.3)	26 (30.2)	13 (18.1)	62 (31.8)	107 (22.9)	36 (17.2)	25 (9.4)	61 (12.9)
① 나 자신	108 (11.5)	4 (3.5)	15 (17.4)	9 (12.5)	44 (22.6)	72 (15.4)	19 (9.1)	17 (6.4)	36 (7.6)
② 도움 필요한 사람 없음	60 (6.4)	1 (1.8)	11 (12.8)	4 (5.6)	18 (9.2)	35 (7.5)	17 (8.1)	8 (3.0)	25 (5.3)
3. 부모님	156 (16.6)	0 (0.0)	30 (34.9)	17 (23.6)	32 (16.4)	148 (31.6)	2 (1.0)	6 (2.2)	8 (1.7)
① 부모님	119 (12.6)	0 (0.0)	24 (27.9)	16 (22.2)	25 (12.8)	115 (24.6)	1 (.5)	3 (1.1)	4 (.8)
② 어머니	28 (3.0)	1 (1.3)	4 (4.7)	1 (1.4)	4 (2.1)	24 (5.1)	1 (.5)	3 (1.1)	4 (.8)
③ 아버지	9 (1.0)	4 (3.5)	2 (2.3)	-	3 (1.5)	9 (1.9)	-	-	-
4. 친구들	89 (9.5)	3 (2.6)	7 (8.1)	14 (19.4)	48 (24.6)	72 (15.4)	12 (5.8)	5 (1.9)	17 (3.6)
5. 선생님	75 (8.0)	27 (23.7)	11 (12.8)	11 (15.3)	14 (7.2)	63 (13.5)	4 (1.9)	8 (3.0)	12 (2.5)
6. 주변사람들	67 (7.1)	1 (1.8)	4 (4.7)	8 (11.1)	18 (9.2)	32 (6.9)	21 (10.0)	14 (5.4)	35 (7.4)
① 주변 사람들	21 (2.2)	-	1 (1.2)	3 (4.2)	2 (1.0)	6 (1.3)	5 (2.4)	10 (3.8)	15 (3.2)
② 정보제공의 전문가	17 (1.8)	1 (1.8)	3 (3.5)	3 (6.9)	2 (1.0)	12 (2.6)	3 (1.4)	2 (.8)	5 (1.1)
③ 학교 선후배	17 (1.8)	-	-	-	14 (7.2)	14 (3.0)	3 (1.4)	-	3 (.6)
④ 직장동료	12 (1.3)	-	-	-	-	-	10 (4.8)	2 (.8)	12 (2.5)
7. 기타	45 (4.7)	1 (.9)	2 (2.3)	4 (5.6)	6 (3.1)	13 (2.7)	8 (3.8)	24 (9.1)	32 (6.8)
① 종교	23 (2.4)	-	-	2 (2.8)	1 (.5)	3 (.6)	4 (1.9)	16 (6.1)	20 (4.2)
② 기타	22 (2.3)	1 (.9)	2 (2.3)	2 (2.8)	5 (2.6)	10 (2.1)	4 (1.9)	8 (3.0)	12 (2.5)
계	940 (100)	114 (100)	86 (100)	72 (100)	195 (100)	467 (100)	209 (100)	264 (100)	473 (100)

는 ‘부모님’(60.5%)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미있는 타인으로 ‘선생님’(23.7%)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34.9%)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나, 초등학생에 비교해 볼 때 거의 반 정도로 반응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30.2%)이라는 반응율이 ‘부모님’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선생님에 대한 반응율은 초등학생 시기보다 반 가까이 줄

어 들었다. 고등학생들도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23.6%)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부모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친구들’(19.4%)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친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이 되면 더 가속화되어, 대학생들은 ‘나 자신’(31.8%)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친구들’(24.6%)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으며 ‘부모

님'(16.4%)은 중요한 순서가 세 번째로 밀려 난 점에서 초 중 고등학생과 큰 차이가 있었다.

미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관한, 부집단과 모집단 간에 패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두 하위집단 모두 '부모 외 가족 외 중 요성을 60% 이상 응답하는 유사성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 세 번째로는 주변 사

람들'이 지적된 점에서 유사하였다. 반응율을 상호 직접 비교해 본다면, 부 집단은 모 집단 보다는 '나 자신'을, 모 집단은 부 집단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좀더 의지하는 차이가 시사 되었다.

표 6은 앞의 미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 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그 사람으로

표 6. 미래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내용

집단 도움의 내용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정서적 지원	407 (45.7)	45 (42.1)	33 (41.3)	31 (44.3)	80 (44.2)	189 (41.6)	101 (51.3)	117 (48.8)	218 (49.9)
① 정신적 의지	85 (9.5)	13 (12.1)	10 (12.5)	3 (7.1)	14 (7.7)	42 (9.3)	28 (14.2)	15 (6.3)	43 (9.8)
② 신뢰	84 (9.4)	8 (7.5)	7 (8.8)	8 (11.4)	24 (13.3)	47 (10.4)	19 (9.6)	18 (7.5)	37 (8.5)
③ 격려/칭찬	75 (8.4)	13 (12.1)	7 (8.8)	6 (8.6)	18 (9.9)	44 (9.7)	11 (5.6)	20 (8.3)	31 (7.1)
④ 이해	53 (5.9)	-	3 (2.5)	1 (1.4)	8 (4.4)	11 (2.4)	11 (5.6)	31 (12.9)	42 (9.6)
⑤ 사랑/관심	42 (4.7)	6 (5.6)	1 (1.3)	3 (7.1)	2 (1.1)	14 (3.1)	13 (6.6)	15 (6.3)	28 (6.4)
⑥ 자신감	23 (2.6)	2 (1.9)	2 (2.5)	1 (1.4)	7 (3.9)	12 (2.6)	6 (3.0)	5 (2.1)	11 (2.5)
⑦ 위로	21 (2.4)	1 (.9)	1 (1.3)	3 (7.1)	3 (1.7)	10 (2.2)	7 (3.6)	4 (1.7)	11 (2.5)
⑧ 편안함	12 (1.3)	2 (1.9)	2 (2.5)	-	2 (1.1)	6 (1.3)	2 (1.0)	4 (1.7)	6 (1.4)
⑨ 기도	12 (1.3)	-	1 (1.3)	-	2 (1.1)	3 (.7)	4 (2.0)	5 (2.1)	9 (2.1)
2. 정보적 지원	189 (21.2)	43 (40.2)	28 (35.0)	26 (37.1)	48 (26.5)	145 (31.9)	19 (9.6)	25 (10.4)	44 (10.1)
① 가르침/배움	72 (8.1)	30 (28.0)	8 (10.0)	13 (18.6)	12 (6.6)	63 (13.9)	3 (1.5)	6 (2.5)	9 (2.1)
② 조언	40 (4.5)	10 (9.3)	11 (13.8)	3 (4.3)	6 (3.3)	30 (6.6)	4 (2.0)	6 (2.5)	10 (2.3)
③ 정보제공	28 (3.1)	1 (.9)	1 (1.3)	3 (7.1)	13 (7.2)	20 (4.4)	6 (3.0)	2 (.8)	8 (1.8)
④ 방향제시	22 (2.5)	-	2 (2.5)	3 (7.1)	3 (2.8)	12 (2.6)	4 (2.0)	6 (2.5)	10 (2.3)
⑤ 충고	15 (1.7)	1 (.9)	3 (3.8)	-	8 (4.4)	12 (2.6)	2 (1.0)	1 (.4)	3 (.7)
⑥ 상담	12 (1.3)	1 (.9)	3 (3.8)	-	4 (2.2)	8 (1.8)	-	4 (1.7)	4 (.9)
3. 경제적 지원	124 (13.9)	11 (10.3)	12 (15.0)	6 (8.6)	33 (18.2)	62 (13.7)	30 (15.2)	32 (13.3)	62 (14.2)
4. 나의 노력	78 (8.8)	1 (.9)	1 (1.3)	16 (22.9)	10 (5.5)	28 (6.2)	28 (14.2)	22 (9.2)	50 (11.4)
5. 협조	63 (7.1)	2 (1.9)	4 (5.0)	2 (2.9)	3 (2.8)	13 (2.9)	14 (7.1)	36 (15.0)	50 (11.4)
① 협조	54 (6.1)	2 (1.9)	4 (5.0)	2 (2.9)	3 (1.7)	11 (2.4)	12 (6.1)	31 (12.9)	43 (9.8)
② 일의 분담	9 (1.0)	-	-	-	2 (1.1)	2 (.4)	2 (1.0)	5 (2.1)	7 (1.6)
6. 기타	30 (3.3)	3 (4.7)	1 (2.5)	3 (7.1)	3 (2.8)	17 (3.7)	5 (2.5)	8 (3.3)	13 (3.0)
① 공부에 대한 자극	12 (1.3)	3 (2.8)	2 (2.5)	3 (7.1)	2 (1.1)	12 (2.6)	-	-	-
② 건강	10 (1.1)	-	-	-	2 (1.1)	2 (.4)	3 (1.5)	5 (2.1)	8 (1.8)
③ 가정의 화목	8 (.9)	2 (1.9)	-	-	1 (.6)	3 (.7)	2 (1.0)	3 (1.3)	5 (1.1)
계	891(100)	107 (100)	80 (100)	70 (100)	181 (100)	454 (100)	197 (100)	240 (100)	437 (100)

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청소년(41.6%)과 부모(49.9%) 집단 모두 ‘정서적 지원’ 범주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지원에 속하는 항목들로는 ‘정신적 의지, 신뢰, 격려/칭찬, 이해, 사랑/관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미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내용으로 두 번째 많이 지적된 범주는 청소년의 경우에 ‘정보적 지원’(31.9%)으로서 반응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14.2%)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비슷한 비율로 ‘나의 노력’(11.4%)과 ‘협조’(11.4%)가 지적되었으며, ‘정보적 지원’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에 비해 정보적 지원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적 지원’ 다음 세 번째 범주로 ‘경제적 지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전체 경향과 일치하여, 초·중·대학생 집단 모두 이러한 반응 순서를 보였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는 세 번째 범주가 ‘나의 노력’(22.9%)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지원은 현저하게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가까이 앞두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욱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표 7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

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 자기조절 범주는 ‘노력, 의지력’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그 다음으로 ‘공부 열심, 마음가짐’이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인내, 건강관리, 최선을 다함, 목표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청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두 번째로는 ‘가정환경’ 범주를 많이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는 부모 집단에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님의 지원’이 대표적인 항목이었으며, 부모 집단에서는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훌륭한 자녀양육’이 중요한 항목들로 포함되었다. 자기조절과 가정환경 범주 외에도, ‘성격,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개발’이 중요한 범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미래의 성공을 위해 노력이나 의지력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며, 그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과 화목, 경제적 안정, 및 성공적인 자녀 양육 등 가정환경 요인이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집단별로 볼 때, 부모 집단 내에서 부모 및, 청소년 집단 내에서 초·중·고등학생 모두,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성과 일치하여 ‘자기조절’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지 대학생 집단에서만 ‘자기조절’ 다음으로 ‘능력 개발’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생이나 부모 집단보다도 대학생들이, 미래성취를 위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집단 미래성취 요인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자기조절	583 (60.0)	60 (61.1)	55 (64.7)	48 (67.6)	139 (68.1)	311 (65.7)	128 (54.7)	144 (53.9)	272 (54.3)
① 노력	181 (18.6)	43 (38.1)	25 (29.4)	18 (25.4)	33 (16.2)	119 (25.2)	25 (10.7)	37 (13.9)	62 (12.4)
② 의지력	128 (13.1)	10 (8.8)	14 (16.5)	3 (7.0)	42 (20.6)	71 (15.0)	26 (11.1)	31 (11.6)	57 (11.4)
③ 공부 열심	71 (7.3)	3 (2.7)	8 (9.4)	15 (21.1)	12 (5.9)	38 (8.0)	14 (6.0)	19 (7.1)	33 (6.6)
④ 마음가짐	70 (7.2)	4 (5.3)	2 (2.4)	1 (2.8)	19 (9.3)	29 (6.1)	18 (7.7)	23 (8.6)	41 (8.2)
⑤ 인내	47 (4.8)	3 (4.4)	2 (2.4)	3 (4.2)	13 (6.4)	23 (4.9)	13 (5.6)	11 (4.1)	24 (4.8)
⑥ 건강관리	40 (4.1)	-	-	-	3 (2.5)	3 (1.1)	18 (7.7)	17 (6.4)	35 (7.0)
⑦ 최선을 다함	24 (2.5)	1 (1.8)	4 (4.7)	3 (4.2)	3 (2.5)	14 (3.0)	7 (3.0)	3 (1.1)	10 (2.0)
⑧ 목표설정	22 (2.3)	-	-	1 (2.8)	10 (4.9)	12 (2.5)	7 (3.0)	3 (1.1)	10 (2.0)
2. 가정환경	175 (18.0)	20 (17.7)	12 (14.1)	11 (15.5)	16 (7.9)	59 (12.5)	58 (24.8)	58 (21.7)	116 (23.2)
① 부모님의 지원	56 (5.8)	19 (16.8)	10 (11.8)	10 (14.1)	12 (5.9)	51 (10.8)	2 (0.9)	3 (1.1)	5 (1.0)
② 가정의 화목	51 (5.2)	-	1 (1.2)	-	2 (1.0)	3 (0.6)	25 (10.7)	23 (8.6)	48 (9.6)
③ 가정의 경제적 안정	39 (4.0)	1 (0.9)	1 (1.2)	1 (1.4)	2 (1.0)	3 (1.1)	22 (9.4)	12 (4.5)	34 (6.8)
④ 훌륭한 자녀양육	20 (2.1)	-	-	-	-	-	6 (2.6)	14 (5.2)	20 (4.0)
⑤ 배우자 도움	9 (0.9)	-	-	-	-	-	3 (1.3)	6 (2.2)	9 (1.8)
3. 성격	66 (6.8)	3 (4.4)	4 (4.7)	4 (8.4)	9 (4.4)	24 (5.1)	21 (9.0)	21 (7.9)	42 (8.4)
① 성실성	47 (4.8)	4 (3.5)	2 (2.4)	3 (4.2)	4 (2.0)	13 (2.7)	16 (6.8)	18 (6.7)	34 (6.8)
② 적극성	19 (2.0)	1 (0.9)	2 (2.4)	3 (4.2)	5 (2.5)	11 (2.3)	3 (1.3)	3 (1.1)	8 (1.6)
4. 원만한 인간관계	54 (5.5)	10 (8.8)	4 (4.7)	3 (4.2)	10 (4.9)	27 (5.7)	9 (3.9)	18 (6.7)	27 (5.4)
① 원만한 인간관계	27 (2.8)	4 (3.5)	1 (1.2)	1 (2.8)	4 (2.0)	13 (2.7)	8 (3.4)	6 (2.2)	14 (2.8)
② 주변사람들	15 (1.5)	-	-	-	6 (2.9)	6 (1.3)	-	9 (3.4)	9 (1.8)
③ 주위의 관심	12 (1.2)	4 (3.5)	3 (3.5)	1 (1.4)	-	8 (1.7)	1 (0.4)	3 (1.1)	4 (0.8)
5. 능력 개발	47 (4.7)	3 (4.4)	7 (8.2)	3 (4.2)	21 (10.3)	36 (7.6)	3 (1.3)	6 (2.2)	11 (2.2)
① 능력 개발	21 (2.1)	1 (0.9)	2 (2.4)	1 (1.4)	12 (5.9)	16 (3.4)	3 (1.3)	2 (0.7)	5 (1.0)
② 지식/정보	14 (1.4)	1 (1.8)	3 (3.5)	1 (2.8)	4 (2.0)	11 (2.3)	1 (0.4)	2 (0.7)	3 (0.6)
③ 판단력	12 (1.2)	1 (1.8)	2 (2.4)	-	3 (2.5)	9 (1.9)	1 (0.4)	2 (0.7)	3 (0.6)
6. 기타	49 (5.0)	4 (3.5)	3 (3.6)	-	9 (4.4)	16 (3.4)	13 (5.6)	20 (7.5)	33 (6.6)
① 종교	19 (2.0)	-	1 (1.2)	-	3 (1.5)	4 (0.8)	4 (1.7)	11 (4.1)	15 (3.0)
② 없음	18 (1.8)	4 (3.5)	2 (2.4)	-	3 (2.5)	11 (2.3)	4 (1.7)	3 (1.1)	7 (1.4)
③ 기타	12 (1.2)	-	-	-	1 (0.5)	1 (0.2)	3 (1.3)	6 (2.2)	11 (2.2)
계	974 (100)	113 (100)	85 (100)	71 (100)	204 (100)	473 (100)	234 (100)	267 (100)	501 (100)

논의 및 결론

성공, 실패, 미래성취 의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2002; 박영신, 김의철, 1999)과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공통되는 점들이 발견된다. 네 연구에서의 누적적 결과들에 토대하여,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성취 관련

토착심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성취의 핵심적인 원인으로서, 노력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 경향성

이 연구에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청소년(65.7%)과 부모(54.3%) 모두 '자기조절'을 지적했다. 이러한 자기조절은 '노력'과 '의지력'으로 대표되었으며, 이외에도 '공부 열심, 마음가짐, 인내' 등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58.7%)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으며, '꾸준한 노력, 강한 의지력'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원하는 미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은, 과거의 성공 결과에 대한 원인 지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8)도, 청소년과 부모 모두 '노력'과 '의지'에 의해 대표되는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응답(41.4%) 하였다. 동일한 질문을 다른 표집대상에게 하였을 때(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도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39.1%)이 가장 높았다. 즉 '노력'이 가장 핵심이었으며, 이외에 '신념, 의지, 인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39.9%)들이 '자기조절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자기조절의 결여란 '노력 부족'에 의해 대표되었으며, 이외에도 '나약한 마음가짐, 의지력 부

족, 안일한 태도, 게으름, 인내력 부족'과 같은 의미들을 함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노력 부족'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결여'에 대한 강한 지지(33.1%)는,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1999)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또는 자기조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에서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능력 개발'을 지적한 경우는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으며,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는 7.3%만이 '실력'이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과거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원인으로 박영신과 김의철(1998)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2.3%만이 '능력'을 지적하였고,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1.6%만이 '능력'을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8.2%가,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능력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 한국 사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력을 갖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약 4명 정도는 노력과 의지력 등 자기조절과 관련된 것에 귀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강한 의지력으로 노력하는 가치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다.

한국 사람들은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왜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에 대해 강하게 집착을 하고 능력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일까? 객관적으로 보면 노력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같은 결과를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일을 더욱 성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능력보다 노력을 성공요인으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몇 가지 측면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사람들의 가치인식의 저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성은 유교적 가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Kim & Park, 2000). 유교에서는 인간이 본래의 덕성을 갖고 있으나 욕망이 작용하므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후천적 노력에 따른 변화를 강조(최근덕, 송향용, 송하경, 서경요, 이기동, 오석원, 김성기, 2000)하며,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이 가정과 국가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하는 기본¹⁾(성백효, 1998)이라고 보았다. 불교에

서도 정정진이 팔정도²⁾에 포함된다(현각, 2001)고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동양에 뿌리를 둔 정신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치체계와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기준으로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현상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하에 대한 신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김의철, 박영신, 2005)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노력의 자세를 신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은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그러한 도덕성을 신뢰의 기반으로 한국 사람들은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신뢰를 받는 사람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좋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제공된 기회를 포착하여 일을 잘 완성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안해진다.(대학, 1편)

2) 팔정도(八正道):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욕망과 분노 무지를 버리고 '참 나'로 돌아오는 길로서의 여덟 가지 방법임:

① 정견(正見) 바른 견해, ② 정사(正思) 바른 생각, ③ 정어(正語) 바른 말, ④ 정업(正業) 바른 행위, ⑤ 정명(定命) 바른 삶, ⑥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⑦ 정념(正念) 깨어있는 상태, ⑧ 정정(正定) 바른 수행.

1) 物格以後知至 知至以後意誠 意誠以後心正 心正以後身修 身修以後家齊 家齊以後國治 國治以後天下平

사물의 이치가 이룬 후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국 사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토양이 개인의 자기조절과 노력을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가 일치되어, 노력하고 자기조절을 잘 해야 성공한다는 집단가치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갖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그것이 검증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는 노력하는 사람을 무능하게 본다든가 하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최상진과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인고(忍苦)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비인고(非忍苦)보다는 인고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더 가치있게 지각하였으며, 비인고보다는 인고 조건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평가자들은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고위공직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파문이,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직자의 재산증식 논란이라든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등, 도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최근 대장급 인사에서 ‘군 수뇌부로서의 능력’만이 아니라 ‘국민 정서와의 부합’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었다. 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05년 3월 19일). 이와

같이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스웨덴과 같은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현저하게 높았다(Helgesen & Kim, 2002).

여하튼간에 우리 사회에서 의지력을 갖고 노력하면 미래에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집단적인 가치가 팽배해 있음은, 한편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 사회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a)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연고주의 사회(이훈구, 2003)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인식보다, 개인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사고가 건실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외환위기 상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IMF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음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자기조절에만 초점을 두고, 주변의 환경 즉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 환경적인 통제를 효율적으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Park & Kim, 1999).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처럼, 물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통찰과 관리 능력이 결여된 채로 자기조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

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유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개인의 삶에서 성취나 국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인의 정신력에 토대한 노력을 통한 자기조절과 더불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라는, 세 가지 측면들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성취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미래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은 부모(31.6%)를, 성인들은 '부모 외 가족'(65.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38.3%)를, 성인들은 '부모 외 가족'(54.2%)을 지적함으로써(박영신, 김의철, 1999), 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반응 경향이 있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소년은 '부모'(34.9%)를, 성인은 '부모'(27.1%) 및 '부모 외 가족'(22.7%)을 지적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8).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은 '부모'(41.1%)가 성인은 '부모 외 가족'(48.8%)이 가장 도움이 된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부모 외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대표적이었고 그 외의 가족들도 포함되었다.

한편, 미래성취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질문하였을 때, 정

서적 지원'과 관련된 응답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41.6%)과 성인(49.9%)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정서적 지원이란 주로 '정신적 의지, 신뢰, 격려, 이해' 등을 의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36.0%)과 성인(36.1%)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여기에는 '격려, 이해, 정신적 도움'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박영신, 김의철 1999).

과거의 자랑스러운 성공도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반응이, 청소년(34.9%)과 성인(34.3%)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속에는 '격려와 칭찬, 정신적 도움, 자신감을 심어줌'과 같은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김의철, 박영신, 1998). 또 다른 연구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서도 청소년(37.2%)과 성인(40.0%)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여기에는 '정신적 도움, 격려와 칭찬, 관심과 사랑, 나를 믿어줌'과 같은 반응들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이든, 미래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든 간에,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청소년들은 부모가, 성인들은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 중에는 구체적인 가족구성원을 지적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한 경우도 많음으로써,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정서적 지원이 정보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험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실직자가 되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 현재 삼겹살 집을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 “직장을 그만 둔 아빠가 계속 안 들어오셨다. 어디에 가 계실까. 어제 TV에서 서울역 노숙자들이 나왔다. 혹시 아빠가 있을까봐 유심히 봤지만 다행히 아빠는 거기에 없었다. 아빠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지방을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잠깐 경기도 안양의 집에 들른 김종서(52세) 씨는 우연히 초등학교 아들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눈물이 왁글 쏟아졌다. 삶이 힘들어 두 차례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였다. 이제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를 다시 끌어올린 것은 결국 가족이었다.

대기업 관리직 간부로 일했던 김씨는 2003년 봄 명예퇴직을 했다. 이름은 ‘명예퇴직’이었지만 사실은 별로 명예롭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떠날 때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 후 일은 꼬였다. 퇴직금을 중국 무역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수 천 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다 떼이고, 주식 투자로도 큰 돈을 날렸다. 자포자기 상태로 방랑자처럼 노숙자생활을 하던 김씨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 명절 이 외에는 연중무휴로 문을 열었다. ‘죽어도 가게에서 죽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

(출처: 중앙일보, 2005년 1월 10일)

김씨와 같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비록 무능한 실직자 가정의 뼈아픈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사를 읽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슴부터 뜨거워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김씨가 인생의 막다

른 골목에서 자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아들의 일기를 본 것이 계기였다. 그리고 김씨는 ‘죽어도 가게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연중무휴로 문을 열어’ 현재는 창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정신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아들의 일기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가? 초등학교 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정보적인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창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도 아니다. 또는 문학과 같은 수려한 문장을 쓴 것도 아니고, 학자처럼 논리적인 문장으로 아버지를 설득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을 일기에서 읽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린 아들로부터 생명의 끈과 같이 소중한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정서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던 간에 결국 한국 사람들의 심정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해나 위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나 자신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이나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의 성취 저변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강한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 집단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연구를 포함한 성취관련 토착심리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청소년(57.7%)과 성인(57.1%) 모두 '정서적 도움'이 가장 중요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여기에서 정서적 도움에 속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격려/위로, 대화, 공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예시한 김씨의 경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실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에너지는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지원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성취행동이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만 아니라, 박영신과 김의철(2004c)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도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확인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1)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영향, 2) 부모의 자녀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와 압력, 3)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 모두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도, 부모의 강한 정서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모든 정성을 기울일 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강한 정서적 지원을 느끼고, 그러한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성취동기와 나아가서 높은 성취의 원동력으로 작용(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한국 사람들

은 성취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지원은 한국인의 심정교류적 의사소통 양식(최상진, 2000)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합리와 이성에 토대하기보다는 정서와 심정에 토대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성취와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기록하게 하였을 때, 가장 많은 청소년 응답자들이(37.6%) '학업성취'를 지적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8). 초 중 고 대 학생을 모두 포함한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2)의 연구에서는 더욱 높은 비율(65.1%)로 '학업성취'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학업적인 성취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적 향상,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등이었다. 또한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을 질문하였을 때,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취업'(49.2%) 다음으로 '학업성취'(24.4%)를 많이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반응 경향이 확인되었다(취업-41.4%, 학업성취-34.2%).

한편,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45.4%) 뿐만 아니라 부모(30.0%)도 '학업 실패'를 제일 많이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청소년(46.0%)들의 경우에 '학업 실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부모들은 '가정생활 문제'(21.3%) 다음으로 '학업실패'(18.6%)를 많이 지적하였다. 부모 집단의 반응에서 이 연구와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1999)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의 실패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모들에게도 매우 비중있는 실패 경험으로 지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학업에서의 성패가 한국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학창시절이 끝나고 인생의 다양한 목표를 향해 생활하는 성인도, 학업에서의 실패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로 회고하는 결과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강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매년 대학교 졸업 시기가 되면, 만학도에 대한 기사들(연합뉴스, 2005년 2월 13일; 제주일보, 2005년 2월 21일; SBS TV, 2005년 2월 18일)이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2005년 2월에도 76세에 대학교를 졸업한 할아버지 학생이 있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건설회사 사장까지 되었지만, 공부를 마치지 못한 한이 남아 학교에 복학하여 손자뻘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다(한겨레, 2005년 2월 15일)는 것이다.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해 한 맺힌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성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은, 만학도로서 성취를 추구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해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통한 대리성취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느끼는 죄송함과 이로 인해 높은 사회지향 성취동기(Yu & Yang, 1994)를 경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높은 학업성취가 가능해 진다. 많은 부모들은 확대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양식은 학업성취의 핵심이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Park & Kim, 2004). 한국인은 부모와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확대된 자기로 지각(박영신, 김의철, 2004a)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리적인 성취감이 쉽게 가능하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의 원인이 신분상승욕구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인격도야의 한 과정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든, 다른 무엇이었던 간에, 여하튼 한국의 학생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강한 교육적 열망을 공통적으로 추구(Kim, 2001)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확신(Seth, 2002)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신념과 목표에 대한 가치의 일치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노력

을 기울이게 촉진시키는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학업성취 열망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최근 OECD 국가의 고교 1학년 대상 국제비교연구(PISA 2003)에서 한국이 종합 2위를, 중 2학년 대상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TIMSS 2003)에서도 수학 2위, 과학 3위의 탁월한 결과를 얻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앞으로 우리 교수 학습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국 학생들이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태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를 하고 있다. 정의적 태도에서 낮은 점수는 앞으로 높은 성취를 계속 담보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개인의 흥미나 가치인식이 동기나 성취결과를 결정한다는, 개인주의 문화에 토대를 둔 서구 중심의 이론이 가정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한국의 청소년들이 서양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TIMSS 2003에서 정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3개의 하위변인이 있는데, 그중에 '수학/과학에 대한 가치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에,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수학 과학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 내용들은 모두 개인에 초점을 둔 가치인식만을 다루고 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의 가치를 인식할 때에 자기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가를 질문해 보게 된다. 오히려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과 자기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치있는가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 문화는 개인보다는 관계에 토대를 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만약 TIMSS 2003의 '수학/과학에 대한 가치인식'의 질문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나는 수학 과학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주의 문화에 토대를 둔 정의적 태도를 측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한국 청소년들의 정의적 태도를 측정한 점수가 지금처럼 형편없이 낮을 것인가!

우리는 서양의 이론을 무조건 받아들여 한국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익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이론을 논할 때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문화적 뿌리를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이론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무조건적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취 현상을 개인주의 문화에 뿌리를 둔 서구의 이론 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에 뿌리를 둔 토착심리의 이론 틀에 의해 재조명하고 재해석해 나갈 필요(박영신, 김의철, 2003)가 있을 것이다. 김의철, 박영신과 구재선(2004)도 한국의 교육적 성취가 한국 문화에서의 사회화과정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도 유발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높은 사교육 등으로 조기유학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녀교육을 명분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록

가족 구성원들의 자발적 선택이기는 하나 비동거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가정형태는 아닌 것이다. 또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험부정과 같은 도덕적 이탈현상 또는 범법행위가 자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열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모든 국민이 높은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수반되기 마련이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본 가족주의 가치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취업' 또는 '학업성취'라고 하였지만, 부모들의 경우는 과반수가 '행복한 가정생활'(50.4%) 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은 '자녀양육, 자녀 삶의 성공, 가족의 건강, 결혼,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취업과 '학업성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들은 '행복한 가정'(24.5%)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원만한 가정, 가족의 성공/건강,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결혼'

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실패 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를 지적하였지만, 부모들은 '가정생활 문제'(21.3%)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문제는 '가족관계, 부모님과 갈등, 자녀교육,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님 돌아가심'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는 성인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 실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 문제'(20.5%)를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정생활 문제로는 '가족관계, 자녀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고 성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성인들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표의식 속에 가족주의 가치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목한 가정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경향은, 세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와 유호식(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 집단 모두 부귀영화나 자아실현 또는 사회봉사보다도 가정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관련 가치의식에 있어 세대집단별 차이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이 유아 어머니 집단(평균 31세)과 청소년 어머니 집단(평균 41세)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세대별 어머니 집단간에 가족관련 가치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자녀 양육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자녀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는 정도도 높았다.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아 어머니 집단이 부모로부터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더 많이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을 추구하는 가족주의 가치는, 단지 가정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여러 인간관계로 확대되면서, 우리의식 및 공동체 개념의 발달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 집,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나의 집, 나의 엄마’

라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는다. 여러 가족이 집이나 엄마는 공유할 수 있으니 그렇다하더라도, 심지어 공유될 수 없는 부부관계에 대해서조차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는 표현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우리 가족의식은 가까운 관계로 확대되는데, 실제로 가족이 아닌데 가족관계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국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 후배가 가까운 선배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확대된 가족주의는 이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가까운 가족관계를 상징하는 사내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 그것이 경영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그룹 회장이 25년간 300회째 매달 직원들 생일을 챙겨 준 경우가 있었다(서울경제, 2003년 12월 10일). 처음에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시작’ 했고, 조출한 생일잔치를 통해 ‘똥손 공영의 철학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안할 때가 많아서 회사로서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생일잔치와 같은 모임을 통해 사내 분위기를 가족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직원들이 자기 회사처럼 애사심을 갖게 되고, 성의를 다해 회사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하게 되었다. 과연 어떠한 조직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하나의 보편화된 경영학 원리보다는, 각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문화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양의 성공적인 인사관리체제나 경영방식을 한국 기업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조직구성원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는 확대된 가족주의가,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김의철(1998)은 한국 기업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서, 수단으로서의 조화와 '목적으로서의 조화'라는 개념의 구분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조화'의 개념에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조직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여서 산출된 성과가 집단 내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때로는 가족공동체 의식이나 가족주의가 잘못 확대되어,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쇄적 연고주의나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집안의 친척관계나,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관계나, 같은 고향 출신의 지역 연고 등에 기초하여, 이러한 특정 인간관계 내에서만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이익을 분배한다면, 그러한 관계망의 혜택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회가 개방되지 못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손실이 크다. Yamagishi (1998)도 일본 사회를 분석하여, 안심하는 관계에의 집착이 개방된 미래사회에서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 많은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도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성을 보이는 점에서, 일반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여 일본 사회가 갖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폐쇄적인 연고주의에서 더 나아가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될 수도 있

음을 경계해야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a)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부패'(22.7%)라는 표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으며, '연고주의'(4.7%)도 대표적인 사회적 표상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과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흔히 한국 사회를 관계문화 또는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집단을 의미하기 보다는, 연고로 연결된 특정 관계나 제한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확대된 일종의 '우리' 집단을 형성하고,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에서 개인과 개인의 경계보다 더 뚜렷한 경계의 구분을 짓는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각 독립된 개체가 존중되고 각자의 사생활 공간에 존재하지만, 한국식 집단주의는 내집단에서는 경계가 거의 없고 서로 희생과 공유가 가능하지만, 일단 내집단을 벗어나 외집단과 갇고 있는 경계는 매우 배타성을 지닌다. 외집단에 대해 존중하기 보다는, 내집단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만약 외집단으로부터 내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집단간에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내집단 구성원끼리 단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가, 최근에는 여러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 자녀들이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이 효도이고 집안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합계 출산율)가 2003년에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도로 심각하다(국민일보, 2005년 4월 25일). 자녀양육과 교육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 미혼 남녀의 인생관과 결혼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계획 표어가 3.3.3.5운동(3자녀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이었던 점(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3)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카톨릭계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공동사목교서'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일까지 있었다. 카톨릭 신자와 일반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많은 가정이 '대화를 거의 못한다'(신자 57.8%, 비신자 53.4%)고 응답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신자 28.6%, 비신자 30.6%)든가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신자 52.6% 비신자 52.1%)는 반응은 일부였다. 반면에 '이혼할 수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신자 45.5%, 일반인 55.2%)나 됨으로써(중앙일보, 2004년 12월 11일), 한국 사회의 이혼 증가, 저출산 등 심각한 가정 문제의 저변에 있는 가치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죽어서 더 외로운 노인들'(조선일보, 2003년 8월 26일)을 기억한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 임시 냉동창고에 보관되는 노인들, 부모의 시체를 찾아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가 그런 세계는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가치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계승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다. 가족 공동체 개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하여, 우선은 민족 통일 문제에서부터 인류 평화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우리가 구성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우리 문화의 가능성(박영신, 김의철, 2004a)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탐색을 맺으며

한국 사회가 1950년 초 6.25 전쟁의 결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폐허 상태에서,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GNP \$10,000 이상의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해 보릿고개를 허덕이던 사회에서, 음식쓰레기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급격히 발전했다. 특별히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 TV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만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구 보급률이 세계 1위로서, 초고속 인터넷망은 이동전화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매일신문, 2005년 4월 22일).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지털 가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하는 품목이 늘어났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위에 오른 품목은 모두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매일경제, 2005년 4월 19일). 한국의 IT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04년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이 OECD 30

개 국가 중에서 종합 6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휴대전화 등 IT제품에 대한 수출 특화도와 기술혁신 분야,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동아일보, 2005년 4월 12일).

그동안 이루어온 이러한 성취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을 이해하고, 앞으로 계속적 성취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민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성취모형은 주로 미국을 선진국 모형으로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외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 발전과 창조를 이루는 데는 무조건적인 모방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한국과 서양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철학이나 문화적 토양이 질적으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이다(Kim, 2003)이다

한 예로 미국식 기업 리더십 모형을 그대로 한국 기업에 적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은 집단주의라면 미국은 개인주의이고, 한국은 보다 여성성이 발달된 사회라면 미국은 남성성의 특징을 가진 사회(Hofstede, 1991)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복지모형이 한국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응답자들을 비교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5)에 의하면, 북유럽과 동아시아의 응답자들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지지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응답자들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

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으며, 정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북유럽의 응답자들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지도자를 더욱 선호하였으나, 한국의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토양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성취를 이룬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분배와 복지 등 배워야 할 점이 많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참조체제로 활용되어야 하고, 결국은 우리 나름의 토착적 모형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문화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착심리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토대한 창의적 모형들이 타 문화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기여할 수 있는가에도 관심을 갖는 장기적 비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모방이 아닌 창조의 시각으로 우리의 성취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공, 실패, 미래성취 의식이라는 연구의 구인과 같은 ‘씨줄’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와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라는 연구 실시 시기를 의미하는 ‘날줄’을 엮어, 다차원적으로 걸러지는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관련된 토착심리라는 핵심이 되는 심리적 구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이

연구를 진행시키는 에너지였다.

이런 기대 속에서 경험과학적 자료들이 분석되었고, 또한 성공 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및,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이 연구; 박영신, 김의철, 1999)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위의 논의에서 다룬 네 가지 측면을 대표적 특성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1) 성취의 핵심적인 원인으로서, 노력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 경향성, 2) 성취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3)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 4)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본 가족주의 가치.

이 네 가지 외에도 한국 사람들의 성취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네 가지 특징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들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박영신, 2000; 박영신, 김의철, 2002; 박영신, 김의철, 2004b; Kim & Park, 2003; Park & Kim, 1999)에서 부분적인 자료들에 기초하여 다룬 바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하면 1996년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일단락의 정리가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를 마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가 사회변동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지속을 지니는지를 꾸준히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 심리를 설명하는데 보다 타당한 논의가 되도록, 이 연구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해온 선행연구 결

과들과 함께 종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종합은, 단순히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라기 보다, 미래 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색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서양의 일부 선진국 사람들의 심리현상을 연구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리 법칙으로 보편화하는 선형모형의 가정을 강조하는 일반심리학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인(agent)으로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의미체계 및 목표의식 등에 의해 활성화된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호작용모형의 가정(Kim, 1999)을 기반으로 하는 토착심리학의 시각이, 심리학 분야에서 점차 부각(Kim, & Park, 2004) 되고 있다.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성적이 하락했을 때 왜 어떤 학생은 자살을 하는데, 왜 어떤 학생은 교문 밖을 나서며 즐겁게 떡볶이를 사먹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성적 하락이라는 객관적인 자극이 동일한 인간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작인으로서 각 개인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Bandura, 1997). 개인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특정 사회의 공유된 목표와 의미와 가치체계 즉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사회에 소속한 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바로, 토착심리 탐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그동안 세 편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경험과학적인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완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람들의 성취의식 외에도 다양한 심리특성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이들을 종합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 추구했던 궁극적인 퍼즐 맞추기는 제 모양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개의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들이 계속 맞추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라는 큰 그림이 보다 완성도 있게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05년 4월 25일). '저출산' 빨간 신호등.
- 김의철 (1998).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와 발전 방향: 기업에서의 인력개발을 위한 모형 탐색. *IG 경영개발원 인재개발원구*, 2(1), 68~101.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2004a).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의철, 박영신 (2004b).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의철, 박영신, 구재선 (2004). Adolescent culture, socialization practice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77~209.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1), 10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내일신문 (2005년 4월 22일). 정보통신 강국 기반된 CDMA, 초고속 인터넷.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3). 가족계획 포어. <http://www.ppfk.or.kr>
- 동아일보 (2005년 4월 12일). 과학 한국 IT: DMB-DTV 세계 표준은 코리아.
- 매일경제. (2005년 4월 19일). 세계 1등 한국제품 확 늘었다.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7.
- 박영신 (2003).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89

- ~105.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제 4 장. 한국 교육학의 토착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자생적 한국교육학의 미래. 122~161. 서울: 원미사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서울경제 (2003년 12월 10일) 보령그룹 창업주 김승호 회장 25년간 매달 직원들 생일 챙겨.
- 성백효. (1998). 대학 중용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연합뉴스. (2005년 2월 13일). 동국대 최고령 졸업생 이용복 씨(59세) 학위 3개 취득
- 이훈구 (2003).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제주일보 (2005년 2월 21일). 67세 만학도 김한주 씨, 오늘 제주대서 박사학위 취득.
- 조선일보 (2003년 8월 26일). 죽어서 더 외로운 노인들: 프랑스 '살인폭염' 후유증, 방치된 시신 늘어. A19면.
- 조선일보 (2005년 4월 11일). 과학고 학생회장 성적비판 자살.
- 중앙일보 (2004년 12월 11일). 무너지는 가정 울타리 되겠다. 카톨릭 '공동사목교서' 발표, 사회문제 관련 메시지는 처음. 27면
- 중앙일보 (2005년 1월 10일). 열전! 창업현장.

- 프랜차이즈 삼겹살 집 운영 김종서 씨 . E6면.
- 중앙일보 (2005년 3월 19일). 능력만큼 도덕성 중시: 군 수뇌부 인사 방향. 6면.
- 최근덕, 송향용, 송하경, 서경요, 이기동, 오석원, 김성기 (2000). 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21~38.
- 한겨레 (2005년 2월 15일). 입학 반세기만에 학사모 쓴 만학도 서두석씨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성과와 과제: 2003 TIMSS와 OECD/PISA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ORM 2004-26.
- 현각 (2001). 선의 나침반: 송산 대성사의 가르침 1. 열림원.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 Helgesen, G. & Kim, U. (2002). *Good government: Nordic and East Asian perspectives*. Copenhagen: NIAS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2001).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Aasen, H. S., Kim, U., & Helgesen, G.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245~278. Kyoyook-Kwahak-Sa.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Kim, U., Aasen, S., & Ebadi, 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ür Allgemeine Padagogik.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 review*, 48(4), 451~464.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SBS TV. (2005년 2월 18일). 박사모 쓴 69살 만학도.
- Seth, M.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 Press.
- Yamagishi, T. (1998).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4. 서울: 교육과학사.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vol.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4. 1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5. 20

Failure experience and aspirations for the fu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Sooyeon Ta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failure experience and aspirations for future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us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reviews the achievement literature that has used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482 students (primary = 117, middle school = 88, high school = 72, and university = 205) and 507 parents of the adolescents (fathers = 236, mothers = 271). The open-end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Park and Kim (1999) was adopted for the study that asked the respondents to list the most painful experience, the person that was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failure,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failure. The section on aspirations for the future asked the respondents to list the achievement that they would most likely to succeed, the person that they need assistance from, the type of support they need from the person,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would lead to them to succ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students the most painful failure was related to academic failure and for adults, it was related to family life. The person that was most responsible for the failure was reported by both samples be themselves. As for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d their failure was a lack of self-regulation, such as a lack of effort and persistence. For the aspiration for future, students listed academic and occupational success and for adults listed harmonious family life as the most important. For social support, the adolescents listed their parents and adults listed their spouse as the person that they need assistance from. As for type of support, they listed emotional support to be the most important. As for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would contribute to their success, majority of students and adults listed self-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and previous indigenous studies indicate,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could be drawn: (1) the emphasis of self-regulation 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ir past achievement, the future success and the lack of self-regulation for their failure; (2) the importance of receiving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3)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aspiration and achievement for providing the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4) the importance goal of achieving harmonious family life.

key words : Failure experience, aspirations for the future, achievement, indigenous psychology,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harmonious family life